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Ⅱ)

윤 인 경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Analysis of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Yoon, In-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 how much of changes has occurred in the newly revised Home Economics Textbooks required by the 6th Curriculum as compared to those by the former 5th Curriculum, and to seek future policy directions which can be improved even better, if any, for further revision.

To implement this proposal, the study employs 8 different textbooks published in 1996 geared for the 6th Curriculum for data base. The components of the contents divide into two major parts. The first part falls into a category of holistic analysis of the textbooks, which gives a general perspective of the changes in the textbook revised. It includes those areas of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pages, cover page, illustrations, table of contents, appendices, unit cover, introductory remarks, summary and evaluation, etc. It also covers the information on authors of textbook. The latter part consists of several specific areas of major changes occurred in the textbooks for the 6th Curriculum. It covers such areas of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category and its weight, laboratory experiences, and illustrations and tables.

To conclude the study, among many findings, two major points are of great importance to mention here. First, the new textbooks have adopted more of varieties in physical appearances and contents *per se* as to the older ones. And yet, there still found a weakness in numbers of authors participated to a full reflection of contents variety.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authors reflected on an unrealistic idealism which lacks the on-sit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chool teachers. Second, the strict regulations cre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developing textbook found restricting the authors creativity and thus contents variety of textbook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체계화한 교수·학습자료로서 교수·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 나라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는 지금까지 1종(국정)도서로서 교육부나 연구개발 기관에서 발행한 단일본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는 2종(검인정)도서로서 8개 종류에 이르며, 교과서의 구성 체제나 지도 내용의 전개 방식 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달라졌다. 즉, 학교와 학생, 지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사가 8개 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교과서를 통한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부가 교과서의 크기, 활자, 지질, 색도, 기준 쪽 수 등을 정해 놓고 있고, 교과서 개발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충실히 못하였던 아쉬움도 있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교과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찾아보는 일은 교과서의 검인정 제도의 확대와 자유발행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의 후속 연구로서, 새로 개정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구성 체제와 지도 내용을 분석하여 일선교사의 새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교수·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대상

제6차 교육 과정에 의해 1996년도에 8개 출판사에서 개발한 8종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기상 편의를 위하여 각 교과서를 가나다 순서에 따라 A-H로 표시한다.

〈표 1〉 연구 대상 교과서

순 서	출판사	저 자
A	교문사	임원자 외 7명
B	교학연구사	윤인경 외 6명
C	동아출판사	이순원 외 4명
D	법문사	조규화 외 7명
E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성화경 외 5명
F	지학사	최영희 외 5명
G	천재교육	이승신 외 4명
H	현대문학	이기준 외 4명

III. 연구 문제와 내용

연구 문제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가정 2 교과서의 체제를 비교 분석한다.

1)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전체 쪽 수, 결표지, 면지, 화보,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 등)

2)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단원도입, 주제의 전개, 단원정리 등)

2. 교과서 집필자의 구성 (집필자 수, 집필자의 소속)을 비교 분석한다.

3. 중학교 가정 2 교과서의 지도 영역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1) 영역의 구성과 비중

2) 영역별 구성 내용과 비중

3) 영역별 활동 및 실험·실습 수와 내용

4)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양

IV.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과 기술적(descriptive) 연구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과정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분석한 내용의 비교와 해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빈도(N)와 백분율(%)을 사용해 통계처리하였다.

V.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1996) 중학교 2학년 가정교과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다른 학년 교과서에 적용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VI. 연구 결과

1. 교과서의 체재

(1)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에서는 <표 2>와 같이 전체 폭수, 걸표지, 면지, 화보,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 등을 살펴보았다.

전체 폭수는 평균 105쪽이었으며, A교과서가 110쪽으로 가장 많았고, B교과서가 96쪽으로 가장 적었으며, 폭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와 가장 적은 교과서의 차이는 14쪽이었다.

걸표지에는 책명, 저자명, 출판사 그리고 교육부 검정인이 명시되어 있었다. 색도는 모두 칼라이며, 대부분 가정 교과와 관련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나, C교과서는 추상적인 그림이었다.

면지는 F, G교과서가 5쪽, 나머지는 6쪽이었으며, 8개 교과서가 모두 칼라로 교과서 본문을 참조한 그림과 사진을 실었는데, 가장 많은 내용은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8개 교과서 모두가 다루었다.

화보는 모두 4쪽으로 칼라였으며, 본문을 참조한 그림, 사진 및 표가 있었다. 화보에 제시한 내용 중 의생활은 A, B, C, D, F, G, H의 7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음식 만들기는 A, E, G의 3개 교과서에서, 영양관리는 B교과서에서, 환경보호는 F교과서에서, 소비생활은 C교과서에서 살고 있었다.

속표지는 모두 1쪽의 3색도로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걸표지와 같은 그림이었으나, G, H교과서는 걸표지와 다른 그림이었다.

이면지는 모두 칼라로 본문을 참조한 그림, 사진 및 자료 등이었으나, G교과서에는 가정 교과의 학년별 내용체계가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머리말은 C, F, H 교과서는 1쪽이었고, 나머지는 2쪽이었다. 머리말 내용은 가정 교과의 목표, 교과

서의 단원명이 4개 교과서에, 개정 취지 및 내용 구성상의 특징이 4개 교과서에 제시되었으며, 학습 방법 및 지도 영역이 제시된 교과서도 있었다.

목차는 B교과서가 4쪽, D, E교과서가 2쪽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쪽이었다. 목차의 순서는 모두 단원→주제→소주제로 되어있다. 단원의 수는 B교과서만 4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3개였다. 주제의 수는 A교과서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F교과서는 7개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는 3개 교과서가 8개, 2개 교과서가 9개, 1개 교과서가 10개였다. 소주제의 수는 평균 24개였는데, A교과서가 30개로 가장 많고, E교과서가 20개로 가장 적었다.

부록은 A교과서가 2쪽, C, D교과서가 5쪽, D, F교과서가 6쪽이었고, 나머지 4개 교과서는 3쪽이었다. 찾아보기는 8개 교과서에 모두 있었으며, 그와 아울러 D교과서는 식품의 폐기율과 섬유의 성능을, F교과서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을 제시하고 있다.

(2)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는 <표 3>와 같이 단원 도입, 주제의 전개, 단원 정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단원 도입에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단원명, 주제명, 단원 사진, 그리고 단원 개요 및 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단원 목표는 A, C, E, G교과서에서 분명한 항목으로 따로 제시한 반면, 나머지 교과서는 단원 개요 내용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단원 표지 앞에 E교과서는 「가정 교과의 성격과 학습의 길잡이」를 전면에 걸쳐 제시하였으며, F교과서는 4쪽에 걸쳐서 「가정을 공부하기 전에」, G교과서는 「가정과 안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주제의 전개는 도입, 본문, 정리 및 평가의 3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도입 부분에는 대개 주제명과 주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 학습 목표 등이 제시되었다. 본문에 있어서는 A교과서의 「실례」와 「알아야 할 용어」가 특징적이었고, B교과서의 「활동」, C교과서의 「토의」, 「연구」가 특징적이었다. 주제의 정리 및 평가에서는 7개 교과서가 각 주제를 종결할 때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E교과서는 연구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C교과서는 심화 학습까지 다루었다.

(표 3)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Ⅱ)

단원 정리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연습 문제를 다루었고, 다만 명칭에 있어서, C교과서는 〈확인 학습 문제〉, E교과서는 〈확인 학습〉, H교과서는 〈종합 문제〉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 하였다. 연습 문제 외에 B, C, H교과서는 단원 정리 또는 단원 요약이 있었고, B교과서에는 개별 심화 학습도 있었다.

2. 교과서 집필자의 구성

교과서 집필자 수는 〈표 4〉에서와 같이 평균 6명 정도였다. A와 D교과서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C, G, H교과서는 5명으로 가장 적었다. 총 집필자 50명 중 86%인 43명이 대학 교수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5명으로 10%에 불과했으며, 연구소 관계자는 2명으로 4%이다. A, C, D, E, H교과서는 대학교수만으로 집필자가 구성되었고, B교과서는 대학교수 6명에 중학교 교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F교과서는 대학교수 5명에 연구소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G교과서는 대학교수 2명, 중·고등학교와 연구소 관계자가 각각 1명으로 집필자의 구성이 가장 다양하였다.

〈표 4〉 교과서의 집필자 현황

(단위: 명)

발행기관 집필자	A	B	C	D	E	F	G	H	평균 (명)	백분율 (%)
집필자 수	8	7	5	8	6	6	5	5	50	6.25
집필자	대 학	8	6	5	6	6	5	2	543	5.38
집필자	고등학교				2		1	3	0.38	6.0
집필자	중 학 교		1				1	2	0.25	4.0
집필자	연구소					1	1	2	0.25	4.0

3. 교과서의 지도 영역과 내용

(1) 지도 영역의 구성과 비중

영역의 비중은 교과서의 머리말, 목차, 부록을 제외한 총 쪽수에 대해 각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쪽수의 비율을 본 것으로, 중학교 가정 2의 영역 구성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8종 교과서의 구성 영역별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식생활이 38.2%로 가장 높고, 의생활 32.5%,

소비생활 29.4%의 순이다.

각 영역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소비생활 영역의 비중은 A교과서(37.6%)가 가장 높았으며, F교과서(22.4%)가 가장 낮았다. 식생활 영역의 비중은 B교과서(48.8%)가 가장 높았으며, A교과서(31.7%)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의생활 영역의 비중은 D교과서(37.6%)가 가장 높았으며, B교과서(27.9%)가 가장 낮았다.

각 교과서별 영역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A교과서는 소비생활 영역(37.6%)이 가장 높고, 의생활 영역(30.7%)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D교과서는 의생활 영역(37.6%)이 가장 높고, 소비생활 영역(25.8%)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B, C, E, F, G, H교과서에서는 식생활(48.8%, 37.5%, 36.0%, 42.9%, 37.5%, 36.0%)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중이 가장 낮은 영역은 B, C, F, G교과서는 소비생활 영역(23.3%, 29.2%, 22.4%, 29.2%), E교과서는 의생활 영역(30.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교과서는 소비생활, 의생활 영역 둘 다 32.0%로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나, 3개 영역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 지도 영역의 구성과 비중

(단위: %, () : 쪽수)

발행 영역	A	B	C	D	E	F	G	H	평균 (평균쪽수)
소비생활	37.5 (38)	23.3 (20)	29.2 (28)	25.9 (24)	34.0 (34)	22.4 (22)	29.2 (28)	32.0 (32)	29.4 (28.3)
식 생활	31.8 (32)	48.8 (42)	37.5 (36)	36.5 (34)	36.0 (36)	42.9 (42)	37.5 (36)	36.0 (36)	38.1 (36.8)
의 생활	30.7 (31)	27.9 (24)	33.3 (32)	37.6 (35)	30.0 (30)	34.7 (34)	33.3 (32)	32.0 (32)	32.5 (31.3)
총 쪽수	100 (101)	100 (86)	100 (96)	100 (93)	100 (100)	100 (98)	100 (96)	100 (100)	100 (96.3)

(2) 지도 영역별 구성 내용과 비중

① 소비생활 영역

소비생활 영역에서의 구성 내용과 비중은 〈표 6〉과 같이 구매 원리 및 의사 결정, 소비자 정보의 활용,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3가지 내용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평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구매 원리 및 의사 결정으로 40.3%였으며,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32.8%), 소비자 정보의 활용(26.9%) 순이었다.

구성 내용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구매 원리 및 의사 결정에서는 H교과서(57.1%)가 가장 높았으며, D교과서(27.3%)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 정보의 활용에서는 C교과서(33.3%)가 가장 높았으며, B교

과서(12.5%)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서는 B교과서(50.3%)가 가장 높았고, H교과서(21.4%)가 가장 낮았다.

한편, 내용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와 가장 낮은 교과서 간의 양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구매 원리 및 의사 결정은 약 2.7배,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2.0배였으며, 소비자 정보의 활용은 5.0배로 큰 차이가 있다.

(표 6) 소비생활 영역의 구성 내용과 비중

(단위 : %, () : 쪽수)

내용 \ 발행기관	A	B	C	D	E	F	G	H	평균 (평균쪽수)
구매 원리 및 의사 결정	37.2 (13)	37.5 (6)	41.7 (10)	27.3 (6)	38.7 (12)	45.0 (9)	36.0 (9)	57.2 (16)	40.3 (10.1)
소비자 정보의 활용	28.6 (10)	12.5 (2)	33.3 (8)	31.7 (7)	29.0 (9)	20.0 (4)	32.0 (8)	21.4 (6)	26.9 (6.8)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	34.2 (12)	50.0 (8)	25.0 (6)	45.0 (9)	32.3 (10)	35.0 (7)	32.0 (8)	21.4 (6)	32.8 (8.3)
총 쪽수	100 (35)	100 (16)	100 (24)	100 (22)	100 (31)	100 (20)	100 (25)	100 (28)	100 (25.1)

(표 7) 식생활 영역의 구성 내용과 비중

(단위 : %, () : 쪽수)

내용 \ 발행기관	A	B	C	D	E	F	G	H	평균 (평균쪽수)
식품의 구입과 보관	62.1 (18)	40.0 (14)	37.5 (12)	51.5 (17)	51.5 (17)	40.0 (16)	48.5 (16)	28.1 (9)	44.6 (14.9)
조리의 원리	17.2 (5)	34.3 (12)	15.6 (5)	18.2 (6)	18.2 (6)	25.0 (10)	21.2 (7)	50.5 (16)	25.1 (8.4)
음식 만들기	20.7 (6)	25.7 (9)	46.9 (15)	30.3 (10)	30.3 (10)	35.0 (14)	30.3 (10)	21.9 (7)	30.3 (10.1)
총 쪽수	100 (29)	100 (35)	100 (32)	100 (33)	100 (33)	100 (40)	100 (33)	100 (7)	100 (33.4)

② 식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에서의 구성 내용과 비중은〈표 7〉과 같이 식품의 구입과 보관, 조리의 원리, 음식 만들기의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균 비

중이 가장 높은 것은 식품의 구입과 보관(44.6%)이었으며, 음식 만들기(30.3%), 조리의 원리(25.1%) 순이었다.

내용별로 그 비중을 비교해 보면, 식품의 구입과

보관에서는 A교과서(62.1%)가 가장 높고, H교과서(28.1%)가 가장 낮았다. 조리의 원리에서는 H교과서(50.5%)가 가장 높고, A교과서(17.2%)가 가장 낮았다. 음식 만들기는 C교과서(46.9%)가 가장 높았으며, A교과서(20.7%)가 가장 낮았다.

이 영역에서 내용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와 가장 낮은 교과서는 양적인 면에서 식품의 구입과 보관은 2.0배, 조리의 원리는 3.2배, 음식 만들기는 2.0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③ 의생활 영역

의생활 영역의 구성 내용과 비중은 〈표 8〉과 같

이 의복 계획, 웃감의 이해, 기성복의 구입과 평가의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웃감의 이해(38.8%)이며, 기성복의 구입과 평가(36.1%), 의복 계획(25.6%) 순이었다.

각 교과서의 내용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의복 계획은 G교과서(37.9%)가 가장 높고, B교과서(15.0%)가 가장 낮았다. 웃감의 이해는 D교과서(60.6%)가 가장 높고, F교과서(24.2%)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성복의 구입과 평가는 F교과서(48.5%)가 가장 높고, D교과서(24.2%)가 가장 낮았다.

〈표 8〉 의생활 영역의 구성 내용과 비중

(단위 : %, () : 폭수)

내용 \ 발행기관	A	B	C	D	E	F	G	H	평균
의복 계획	17.2 (5)	15.0 (3)	32.1 (9)	15.2 (5)	25.9 (7)	27.3 (9)	37.9 (11)	32.1 (9)	25.6 (7.3)
웃감의 이해	37.9 (11)	55.0 (11)	25.0 (7)	60.6 (20)	40.8 (11)	24.2 (8)	27.6 (8)	39.3 (11)	38.3 (10.9)
기성복의 구입과 평가	44.9 (13)	30.0 (6)	42.9 (12)	24.2 (8)	33.3 (9)	48.5 (16)	34.5 (16)	28.6 (8)	36.1 (10.3)
총 폭수	100 (29)	100 (20)	100 (28)	100 (33)	100 (27)	100 (33)	100 (29)	100 (28)	100 (28.4)

이 영역에서 내용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와 가장 낮은 교과서는 양적인 면에서 의복 계획은 약 3.7배, 웃감의 이해는 2.5배, 기성복의 구입과 평가는 2.0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③ 영역별 활동 및 실험·실습 주제와 수

① 영역별 활동과 실험·실습 주제

〈표 9〉에서와 같이 소비생활 영역은 B, C, E교과서만 활동이 있었는데, 구매방법, 소비자 단체,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식생활 영역에서는 반찬 만들기 실습을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A, D, G교과서는 반찬 만들기 실습만을, B, C, E, F, H교과서는 그 외에 조리로 인한 식품 변화 실험(단백질의 열에 의한 응고, 과채류의 갈변), 신선한 식품 고르기, 녹색채소 데치기, 간편 식품 조사 등을 다루었다.

의생활 영역은 B, C, D, E교과서에만 활동이 있었는데, B, C, E교과서는 의복 계획표 작성, 기성복의 취급표시, 섬유별 세탁방법 등을 다루었으며, D교과서는 평직과 능직 염기 실습을 다루었다.

② 영역별 활동과 실험·실습 수

활동은 〈표 10〉에서와 같이 B, C, E교과서에서만 다루었고, 실험·실습은 8개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다. 영역별로 비교했을 때, 활동이 가장 많은 것은 소비생활 영역으로 모두 27회였으며, 식생활 영역(24회), 의생활 영역(22회) 순이었고, 교과서별로 활동을 보면, E교과서가 36회, B교과서가 19회, C교과서가 18회였다.

실험·실습은 식생활 영역이 평균 5.5회로 가장 많았으며, 의생활 영역(0.3회), 소비생활 영역(0회) 순이었다. 교과서별로 실험·실습의 수를 비교해 보면, B교과서가 9회로 가장 많았으며, A, E, G교

(표 10) 영역별 활동 및 실험·실습 수
(단위: 회)

영역 내용		소비 생활	식 생활	의 생활	계	합계
A	활동	0	0	0	0	4
	실험·실습	0	4	0	4	
B	활동	3	9	7	19	28
	실험·실습	0	8	1	9	
C	활동	8	6	4	18	26
	실험·실습	0	8	0	8	
D	활동	0	0	0	0	7
	실험·실습	0	6	1	7	
E	활동	16	9	11	36	40
	실험·실습	0	4	0	4	
F	활동	0	0	0	0	5
	실험·실습	0	5	0	5	
G	활동	0	0	0	0	4
	실험·실습	0	4	0	4	
H	활동	0	0	0	0	5
	실험·실습	0	5	0	5	
계	활동	27	24	22	73	119
	실험·실습	0	44	2	46	
평균	활동	3.4	3.0	2.8	9.1	14.9
	실험·실습	0	5.5	0.3	5.8	

*활동에는 교과서 내용 중 학생 활동을 유도하는 (활동), (조사), (토의)를 모두 포함.

교과서는 4회로 가장 적었다.

활동 및 실험·실습 수를 합했을 때, 횟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E교과서(40회)였으며, 가장 적은 교과서는 A, G교과서(4회)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③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수

영역별 그림의 수를 비교하면, (표 11)과 같이 의생활 영역이 평균 14.1개로 가장 많았고, 식생활 영역(8.3개), 소비생활 영역(7.3개)의 순이다.

사진은 식생활 영역이 평균 24.8개로 가장 많았고, 의생활 영역(10.6개), 소비생활 영역(4.3개)의 순이다.

표는 식생활 영역(2.4개), 의생활 영역(2.0개),

(표 11)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수
(단위: 개)

영역 발행기관	소비 생활	식 생활	의 생활	계	합계
A	그림	5	7	9	21
	사진	1	9	14	24
	표	2	2	5	9
B	그림	3	5	4	12
	사진	5	34	10	49
	표	1	3	0	4
C	그림	8	9	21	38
	사진	3	23	10	36
	표	3	3	2	8
D	그림	8	18	21	47
	사진	1	19	14	34
	표	0	4	2	6
E	그림	12	8	9	29
	사진	10	33	21	64
	표	0	0	1	1
F	그림	9	6	23	38
	사진	2	32	3	37
	표	0	4	2	6
G	그림	7	9	18	34
	사진	8	24	4	36
	표	1	1	1	6
H	그림	6	4	8	18
	사진	4	24	9	37
	표	0	2	3	5
계	그림	58	66	113	237
	사진	34	198	85	317
	표	7	19	16	42
평균	계	99	283	214	596
		(16.6)	(47.5)	(35.9)	(100)
평균	그림	7.3	8.3	14.1	29.6
	사진	4.3	24.8	10.6	39.6
	표	0.9	2.4	2.0	5.3

소비생활 영역(0.9개)의 순이다.

교과서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은 D교과서가 47개로 가장 많았고, B교과서가 12개로 가장 적었다. 사진은 E교과서가 64개로 가장 많았고, A교과서가 24개로 가장 적었다. 표는 A교과서가 9개로 가장 많았고, E교과서가 1개로 가장 적었다. 그림, 사진, 표의 수를 합했을 때는 E교과서가 94개로 가장 많았으며, A교과서가 54개로 가장 적었다.

VII. 결론 및 제언

1996학년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가정 2교과서는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종전의 교과서에 비하여 크게 변화·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과서가 다양한 체제를 갖게되므로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가정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에 있어서는 모든 연구 대상 교과서가 결표지, 면지, 화보, 속표지, 머리말, 목차와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머리말, 목차, 부록을 제외한 각각의 쪽 수도 모두 같다. 즉,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면지, 화보, 속표지 등의 쪽 수나 색도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가정 교과서의 특성과 집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크기를 비롯한 편집상의 제한점들이 완화되어 집필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2)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는 크게, 단원의 도입, 주제의 전개, 단원 정리의 3 단계로 구분되었다. 전체적 흐름은 유사한 것 같으나,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각 교과서의 강조점이 나타나 있었으며, 편집진의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원의 도입에는 단원명, 주제명, 단원 사진, 단원 내용의 개요, 학습 목표 등이 제시되었고, 주제는 도입, 본문, 정리 및 평가의 단계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본문의 전개에서는 활동, 실험·실습, 조사, 토의 등 교수·학습을 다양화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었고, 박스 처리, 고딕 활자의 사용 등 집필자와 편집진의 아이디어가 보이기도 하였다. 단원 정리에는 단원 요약, 연습 문제, 확인 학습, 심화 학습, 종합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3) 교과서의 총 집필자 수는 50명, 평균 집필자 수는 6명이며 이 중 83%인 43명이 대학 교수, 10%인 5명이 교사, 연구소 관계자는 4%인 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교과서의 다양한 영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며 대학 교수 중심의 집필자 구성이다. 따라서, 집필자의 수 증가와 현장 교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4) 지도 영역은 소비 생활, 식생활, 의생활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식생활이 38.1%로 가장 높고, 의생활 32.5%, 소비생활 29.4%의 순이다. 교과서별로는 A교과서는 소비 생활 영역(37.6%)이, D교과서는 의생활 영역(37.6%)이 가장 높고, 그 밖의 교과서는 식생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5) 지도 영역별 구성 내용과 비중을 보면, 소비 생활 영역은 구매 원리 및 의사결정, 소비자 정보의 활용,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 식생활 영역은 식품의 구입과 보관, 조리의 원리, 음식 만들기, 의생활 영역은 의복 계획, 옷감의 이해, 기성복의 구입과 평가로 그 내용이 구성되었다. 이 중 구매 원리 및 의사결정(40.3%), 식품의 구입과 보관(44.6%), 옷감의 이해(38.8%)가 영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내용이다. 내용별 비중은 교과서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비중이 높은 교과서와 낮은 교과서의 양적 차이는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 식품의 구입과 보관, 음식 만들기, 기성복의 구입과 평가 등의 내용에서 2배, 소비자 정보의 활용은 5배까지였다.

6) 영역별 활동과 실험·실습 수를 보면, 소비생활(27회), 식생활(24회), 의생활(22회)의 순이었고, 교과서별로는 E, B, C 교과서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써 교수·학습을 학생 활동 중심으로 유도하여, 가정 교과의 실천 과학적 성격을 반영하여 단순 기능보다는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실생활에의 적용력 등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7)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수는 식생활, 의생활,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 생활 순이다. 식생활에서는 사진이, 의생활과 소비생활에서는 그림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과서별로는 E(94개), D(87개), C(82개), F(81개)의 순으로 종전의 교과서에 비하여 많은 사진과 삽화, 표 등이 게재되어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희·정영숙(1990).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한
국과 일본의 여중고생의 학습관심도에 관한 연구
—의 생활내용 중 의복구성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 1-14.
- 김칠성(1993). 국민학교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재희(1993). 한국의 교과서 정책변천에 관한 연
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경·차미경(1991).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국체

- 비교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 113-130.
- 윤인경·박선영(1990). 중학교 가정과 교육의 국체
비교연구—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
육학회지 2(1), 91-100.
- 윤인경(1996).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79-92.
- 한옥수(1993). 일본에 있어서의 가정과 교육의 실
태—소·중·고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5(1), 1-16.
- 한종하·와 2인(1982). 중학교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